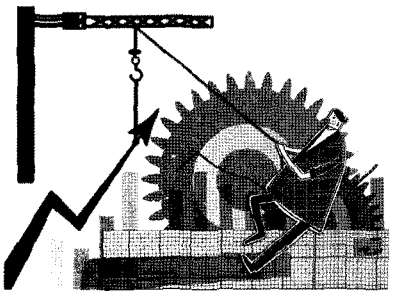
방송장비고도화 실적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0.6.29 KBS · MBC · SBS · EBS, ETRI · KETI, 학계, 업계 및 관련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상반기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송장비 고도화를 상시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경부 · 방통위 공동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동 회의는 지난해 5월 지경부 · 방통위 공동으로 발표한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 발표 후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15년 생산 15억불 달성과 글로벌 스타기업 10개 배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경부 · 방통위 공동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수요자 연계형 R&D(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방송장비산업센터(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정보통신기술협회), 차세대방송 시범서비스(전파진흥협회) 사업에 대한 기관별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방송장비 고도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수요자 연계형 R&D) 수요자와 업계가 공동으로 장비개발에 참여하고 개발한 장비를 수요자가 구매하는 방식의 R&D,(시험인증센터 구축) 국산 방송장비의 고품질화 및 고신뢰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요자 연계형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운영,(해외진출 지원) 패키지 형태의 DMB/IPTV 시스템을 아시아 및 중남미 등에 수출하기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등,(성장인프라 구축) 「방송장비산업센터」를 통해 산업전반의 발전 지원 및 전문인력 공급, 고도화 추진단 등을 운영 등이다.

세부적인 정책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수요연계형 R&D에서는, '09년 정진기금 추경예산으로 140억원을 확보하여, 수요자 연계형 R&D 25개 과제를 규정에 따라 선정 지원('09.7)하였다. 수

요자 연계형 R&D 방식은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에서도 인용되는 등 장비산업 R&D의 성공모델로 평가되었다. '10.5월 중간실적 점검결과 R&D 진행중(연말 완료)임에도 불구하고, 디투넷 등 총 4개 기업에서 약 40억원의 매출이 전망되고 있다.

'10년에는 3DTV 카메라를 핵심과제로 선정(30억원)하여 개발중이며, '11년~'18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취지를 살려 최종 개발제품의 홍보를 통한 수요자 구매 확산을 유도한다. 장비개발 종료전에 사업화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 및 개발제품의 홍보등을 통해 수요자(방송사)의 적극 구매 유도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한국전자전(10월)에 우선 개발된 장비 전시하고, 내년 KOBA(6월)에서 25개 수요자 연계형 R&D 성과발표회를 통해 방송사의 적극 구매 유도를 계획한다.

둘째,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에서는, 국산 방송장비의 고품질화 및 고신뢰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인증기관으로 선정 지원(5.31협약 완료)하였다.

방통위 주관사업으로 '10년~'13년간 총 113.5억원 지원('10년 23.5억원)하였다.방송사 의견수렴 및 제조사를 대상으로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시급한 방송장비를 중심으로 '10년 인증대상장비 9종을 선정하였다.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시험규격 개발 등 시험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10년 하반기부터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10년 HD 방송장비에 대한 시험환경 구축을 시작으로 '11년부터 차세대 방송장비(AT-DMB, 3DTV, UHDTV) 시험환경 구축 예정이다. 차세대 방송장비는 기술개발 및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연차별 탄력적으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인증장비가 수요자(방송사)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홍보 및 방송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해외진출 지원이다. 브라질 · 미국('09.8), 칠레 · 아르헨티나('09.9)와 무역상담회 및 수출상담회 추진(약 86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한다.

몽골('09.12월) 및 중국('10.6월)에서 "방송장비 로드쇼" 개최하였다. 향후 5년간 약 9,000억원(몽골 5,000억원, 중국 4,000억원)의 수출효과가 기대되며, 1,400만불 공급협의 완료(몽골 800백만불, 중국 600만불)되었다.

InterBee(일본), NAB(미국) 등 국제방송전시회에 국가관 형태가 아닌 개별부스 지원으로 기업밀착형 마케팅 지원이다.InterBee 11개기업 7천만원 지원, NAB 10개기업 5천만원 지원했다. 해외진출 지원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전략국가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후속조치 실행

【 '10년도 인증 방송장비 대상 】

• 인증대상 방송장비(9종) : 방송용 LCD 모니터, 그래픽 문자발생기, H.264 인코더, DMB 비디오서버/자산관리, 송신기, DTV 중계기, 변조기, 수신기

【 해외 전시회 및 로드쇼의 구체적인 성과 】

- **몽골로드쇼 :** XENO는 현지에서 휴대용 방송장비 공급을 합의하고, MBC미디어텍을 통해 T-DMB장비 공급 예정 (총 800만불)
- **NAB 참가 :** 수요자 연계형 R&D기업을 중심으로 34업체가 대거참가('09년 10개), DTVInteractive*는 MUX 등을 수출하여 '15년까지 약 500억원 매출 예상
  * R&D 및 해외 마케팅까지 지원하여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2년간 20억지원)
- **중국로드쇼 :** 호남경제TV와 국내업계간 TV드라마(3D)를 제작하기로 구두 합의, 3D카메라 6세트 공급 예정 (약 60억원)

및 지속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성장인프라 구축이다.방송장비산업센터 설치, 포럼 및 고도화 추진단 운영, 전문인력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내에 "방송장비산업센터" 구축('09.9) 하였고, 방송장비 구매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방송장비산업 포럼 운영 중이다.또한, 중소기업에 긴요한 고급연구인력 공급을 위해 「대학 방송장비연구센터」지정 · 운영('09.6, 4년간 32억원 지원)한다.

수요자연계형 R&D 수행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기업 등에 기술개발 지원한다.방송장비산업센터를 통해 단기간내 입체적인 방송장비 산업 육성시책을 집중 추진 함으로써 업계의 관심이 고조된다. 방송장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브랜드력 제고 및 마케팅 지원, AS 방안 마련 등 사업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 1년 실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디지털전환, 신규방송 허가 등으로 방송장비 수요가 확산될 시점에 방송장비 고도화를 추진한 것은 시의적절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의 "방송장비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창투사 펀드도 방송장비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민간투자 유입도 기대된다.수요자 연계형 R&D로 인해 방송사-업계간 조성되고 있는 상생협력 분위기는 방송장비산업 발전에 뉴 모멘텀이 제공되는 것이다. 방송장비의 국산화 확대 및 국내 방송장비 제조사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센터를 통해 방송장비 고도화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특히, 몽골 · 중국 방송장비 로드쇼를 통해 '15년까지 약 9,000억원의 수출효과가 기대되며, 약 1,400만불의 공급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 중에 있다.

"방송장비 고도화"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적 점검과 방송장비 고도화 계획 보강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그 동안의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성과도출 및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예정이다.